

폴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한 겁니까! 모든 것이 절 밀어내고 있어요. 비르지니랑 멀리 떨어져서, 비루한 삶에 보잘것없는 일이나 하게 생겼어요.

그리고는 폴은 한숨을 푹 쉬었네.

노인

하느님께서 자네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 인류 전체가 자네의 세력이 되기를! 자네가 하느님께, 그리고 인류에게 늘 충실하기를! 가족이든, 집단이든, 민족이든, 왕이든, 그들은 나름의 편견과 나름의 정욕을 가지고 있어, 종종 악행으로 섬겨야만 하지. 신과 인류는 우리에게 덕행만을 요구한다네.

그런데 왜 자네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감정이야. 왜냐하면, 만약 각각의 개인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가 자신의 이웃과 전쟁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 신의 섭리가 주어진 신분 안에서 자네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게나. 자네의 운명을 축복하게나. 자네의 운명은 자네가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권세가들처럼 소인배들의 사상에 자네의 행복을 끼워 맞추라 강요하지 않으며, 또한 소인배들처럼 법벌이할 거리를 얻기 위해 권세가들 밑을